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두 축인 출가(出家)와 재가(在家) 대중. 이 출-재가의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정기풍의 확립이 승가의 책무라면 재가불자의 의무는 다변화된 사회에서의 보살행 실천일 것이다.

불교계 전체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온 재가의 대사회 활동.

하지만 그동안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재가자의 사회적인 참여에는 큰 비중을 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행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갖고 재가불자운동을 펼친 한국의 유망세대들은 분명 한국 불교를 오늘에 이끈 일등공신들이다. 재가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다룬 <세속에 핀 연꽃>은 이런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선배들의 '혜안과 헌신' 배우자



◇김기추거사



◇장경호거사



◇오상순거사



◇이희익거사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계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근·현대의 재가불자들 중에서 생전에 뛰어난 활동을 보여준 25인의 신행을 4장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일종의 한국불교 재가거사 열전인 셈이다. 김영순, 김익성, 이재열, 황의돈 등 불교학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냈던 학자에서부터 고우섭, 서창업, 유달진 등 예술혼을 불태우며 장인정신을 보여 주었던 예술가와 김성숙, 유홍기, 장경호 등 불교사상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존재한다. 한결같이 철저한 불교적 세계관으로 중무장(중)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보살심의 소유자들이다.

이 가운데 백봉 김기추 거사(1907~1985)는 20세기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별한 행장은 없지만 오로지 바른 공부를 강조한 것으로 후학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단적인 예로 부산 보림선원에서 수행할 때 학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즉석법문이 열렸다. "지옥을 싫어하지 말고 극락을 좋아하지 말아라", "착한일을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심(私心)이다" 등의 법문을 개개인들에게 들려 주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 대원 장경호 거사(1899~1975)는 1972년 오늘날의 시민선방에 해당하는 대원정사를

'세속에 핀 연꽃'

노규현 외 지음
대한불교진흥원 / 1만2천원



예술가·사상가 등 재가자 25인의 신행
격월간 불교와 문화에 실린 연재 원고 묶음

세위 참선, 염불, 독경 등 불자들의 근기에 맞는 수행체계를 하도록 했다.

그의 아들이었던 중원 장상문 거사(1922~1992) 역시 선전의 뜻을 이어받아 대원정사 이사장에 취임해 신행단체인 대원회와 대원불교대학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대중불교 결사를 주장,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국대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 거사의 큰 공적으로 꼽히는 것은 (주)대원사와 불교방송의 설립이다. 출판과 방송 매체를

통해 불교를 대중화시키려 했다는 점이 당시로서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뿐만 들어도 금방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인, 화가, 음악가도 소개돼 있다. 이들은 불교를 통해 자신의 예술과 문학세계의 폭을 넓혔으며, 이것들을 매개로 대중포교에 앞장섰다. 불교미술 연구의 선각자였던 우현 고우섭(1905~1944), 경전번역과 불교문화에 심취해 고고한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월하 김달진 거사(1907~1989), 찬불가 보급운동에 앞장서는 등 현대 불교 음악의 빛장을 연 마에스트로 우성 서창업 거사(1928~1989)가 그들이다. 또 제행무상의 진리를 체득해 구도의 시세계를 펼쳤던 공초 오상순 거사, 불교신문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탁산 이한상 거사, 최초의 선문화 전문지 월간 <선문화>를 발행한 종달이희익 거사(1905~1990), 불교적 세계관으로 선(禪)을 노래한 지훈 조동탁 거사(1920~1968)도 빼놓을 수 없

다. **세속에 핀 연꽃**이 어디 거사들에만 한정될까. 일타 스님과 법정 스님 등 제방의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끝에 '명원다도회'를 조직한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모친 명원 김미희(1920~1981) 보살과 불교와 민속무용을 통한 구도자의 삶을 살다간 박사 한영숙(1920~1989) 보살의 삶도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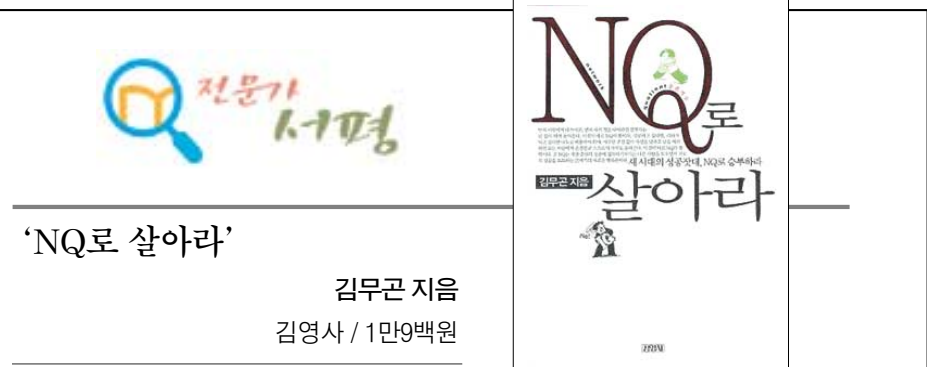
초속의 입줄기

> 20세 때 나는 나라를 잃은 슬픔속에서 인생의 지표를 찾을 수가 없어 방황했다. 책과 사람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했으나 만족치 못했다. 그때 크게 생각되는 바 있어 불경을 탐독했는데, 거기서 한가지 결심이 서게 됐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 노릇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후로 나는 술, 담

배,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아니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안하기로 결심했다. (대원 장경호 거사의 설법중에서)

> 죽고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구태여 이름 따위가 무엇이냐는 것이 월하 선생의 지론이고, 또 그것을 실천한 것이 월하인 것이다. 월하의 일

생은 매일 새벽 5시경에 일어나 참선하고, 그 다음 해가 동터울 무렵까지 2~3시간 작업에 몰두한 다음 간략한 아침 식사 후 유유자적 하게 하루를 보냈다. 노년에는 동네 막걸리집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허물없이 대화하며 어울렸다. 물론 그 자신은 많은 말 대신 남의 말을 들었다.(월하 김달진 편중에서)



'NQ로 살아가라'
김무곤 지음
김영사 / 1만9백원

성공하려면 공존지수 높혀라

활발함을 지켜주던 학연, 지연도 이제 소용없다. IQ 서열로는 남부러울 것 없었던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들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IMF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에서는 연줄도 좋은 머리로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 시대의 성공 잣대는 무엇일까. 김무곤 교수는 이같은 질문 앞에 'NQ(Network Quotient)'라는 신개념 답안지를 제시했다.

새 책 <NQ로 살아가라>는 21세기형 인간척도인 '공존지수'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새로운 네트워크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능력이다.

김무곤 교수는 NQ가 우리에게 익숙한 IQ나 EQ 같은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서로 나누는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학연, 지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IQ를 높이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주장

저자는 NQ의 대가들로 자신을 낮춰 세계를 정복한 유비, 적의 마음조차 사로잡은 김춘추,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사카모토 료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카모토 료마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자.

사카모토 료마는 어릴 때 부모가 포기한 대책 없는 아이였다. 그러나 바보스러운 성격을 가진 료마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먼저 인정해 주고 자신의 공을 타인에게 물렸다. 물심양면으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한 그는 결국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교화하면서 서로 유연하게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백'이나 '혈연' 등으로 결합된 연줄

"함께 나누는 능력이 미래 성공 잣대"

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NQ시대의 가능성을 지켜보았다. 붉은 약마의 월드컵 응원과 촛불시위에 이어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낸 온라인 네트워크의 힘이 그 증거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연줄'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미지 않았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며 번듯한 경력도 없다고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일도 없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강조하는 NQ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함께 잘 살아가는 능력이다. 자기 것을 먼저 내주고 배우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21세기형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제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만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없다. 스포츠팀의 팀워크나 매트릭스 조직이나 모두 다 조화와 협력을 뿌리로 한다. 더불어 사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대다.

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면서도 자유롭게 연결된 네트워크형 사회로 바뀌어야만 행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네트워크는 '졸'로 연결되지 않는다. 새로운 네트워크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한 '백'이 생기지 않는다. 어디에서든 스스로 노력해서, 남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저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스스로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연줄"이 아니라 "NQ의 힘"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이 책은 뒷부분에 수록된 NQ 점수 측정방법을 통해 스스로의 공존능력을 살펴보는 재미도 함께 준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회인들과 공존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장우영 /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NQ로 살아가라>는 NQ의 원조인 예수, 자신을 낮춰 결국 천하를 정복한 유비, 적의 마음조차 사로잡은 김춘추, 숨겨진 NQ의 천재 석가모니 등 역사적 인물에서 알아보는 특별한 성공법칙이 담겨 있다.

평소 존경하는 스님과 부모님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하세요 ~ **홈쇼핑 절찬 판매중!!**

한솔 銀 세라믹매트

한솔 은(銀) 세라믹매트(더블+싱글)

가액 ₩298,000원 (날개 구입 가능)

[상세설명]

- ▶ 한솔 은(銀) 세라믹매트 - 純銀 99.9%
- ▶ 음전위 은열 조합자극기
- ▶ 제조허가 번호: 식약청허가 제 1194호
- ▶ 품목허가 번호: 식약청허가 01-705호
- ▶ 규격: 은세라믹매트(더블) 200cm × 140cm
- 은세라믹매트(싱글) 195cm × 100cm

음전위: **은열 난방**

■ 은(銀)의 효능

- 바이오 기술의 집목으로 은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은이 가지는 뛰어난 생리활성, 연성 그리고 항균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 강력한 은의 항균력: 은과 접촉하여 6분이상 살 수 있는 세균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실험결과 지상의 거의모든 단세포 병균을 살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양에서는 은제컵을 사용하여 병의 감염을 막아 왔으며, 은전을 정액에 넣어 우유의 변질을 막고 은상지속에 음식을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용 썰시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은을 자연항생제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분사 은은 귀금속으로서 그 값이 비싸서 일반 대중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왕궁에서는 은이 인체에 미치는 특이한 점을 이용하여 모든 식기 및 장신구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세기에 유럽지역에 '페스트'가 창궐**해도 왕궁에는 단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100% A/S보장

▶ 제품특징

- 은은 99.9% 사용으로 강력한 항균력
- 생활방수 기능으로 액체에 젖지 않습니다.
- 한솔 은세라믹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게르마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솔 銀 세라믹 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세라믹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 커피, 주스 등 액체를 매트에 흘렸을 경우 마른수건으로 닦아 주는 것으로 매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02-732-1520
[일]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허동규